

“임신위해 직장일 줄여달라”

CBS-TV여성앵커 코니정 회사에 요청



여성이 아기를 갖기 위해 직장 일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직장여성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장애가 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는 일에 적극 나서기 위해 당분간 방송일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결정에 대해 젊은 직장여성들은 “경영주들이



여성을 꺼리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은 ‘일’보다는 ‘가정·모성역할’을 선호한다는 고정관념을 또 한번 확인시켜 준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모성역할을 포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 직장구조에 근본적 문제제기를 한 행동”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모성포기 강요 직장에 문제제기” 평가

“회사서 여성 꺼리는 빌미 제공”반발도

미국 여성지 <글래머> 최근호에 따르면 미국 CBS텔레비전의 유명 여성앵커인 코니 정은 최근 아이를 갖기 위해 자신의 주간 인기프로인 ‘코니 정과 얼굴을 맞대고’를 특별시리즈물로 바꿔달라고 방송사쪽에 공식 요청했다. 방송경력 20년이 넘는 코니 정은 “이제 44살에 접어든 나에겐 임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기 갖

‘굿모닝 아메리카’의 공동진행자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여성앵커 조앤 런던은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아이를 위해 일을 줄이겠다는 사람은 코니 정 한사람은 아니다. 앞으로는 경영주가 능력 있는 여성의 모성역할이 끝난 뒤 다시 채용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며 ‘일’만을 강조하는 경영주의 입장이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